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돌봄
켜다
on
溫
따뜻할 온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돌봄on (켜다▶溫, 따뜻할 온)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경기도 아동돌봄지원단

발간번호
2023-04-B-0006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돌봄
켜다
on
溫
따뜻할 온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CONTENTS

인사말

▶ 설렘

발간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04
축 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05

경기도 아동 돌봄 사업 소개

▶ 만남

경기도 아동 현황 08
경기도 아동돌봄사업이란? 10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12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례

▶ 변화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 18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 22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 26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 30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 34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 38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42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 46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 50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54
우수 사례 수기 58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소개

▶ 동행

인사말 허승연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 단장 72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74
경기도 아동돌봄사업의 사계절 77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인사말

▶ 설렘

돌봄

커다
on
溫
따뜻할 온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입니다.

올해 7월 재단으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6개월간 재단 대표로서 활동이 정말 다양하고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과업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 중 하나가 '아동돌봄'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돌봄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아동을 돌본다는 것'은 생존권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어떤 대상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물로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10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지역거점 사업 운영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거점 아동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첫해로 지역별 센터 선정과 사업을 위한 준비, 인력 채용 등 환경조성, 업무 지침의 이해와 지역사회 내 돌봄 시설 간 이해와 협조 등 어려운 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작은 변화부터 꽤 큰 성과까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가 이뤄낸 값진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있기까지 지역에서 함께 아동을 돌보며 소중한 시간과 의견 내어주신 모든 돌봄 시설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단에서 펴내는 이번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중한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2023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축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 언제나,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발간을 환영합니다.
성과집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도내 여러 돌봄기관들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아동돌봄의 중추입니다.
돌봄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지역의 돌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에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아동돌봄 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도민과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때에 아이를 믿고 맡기며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지사 **김동연**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경기도 아동돌봄사업
소개

▶ 만남

돌봄

커다
on
溫
따뜻할 온

경기도 아동 현황

경기도 아동인구 관련 현황

가. 최근 5년간 경기도 아동인구 현황(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17년~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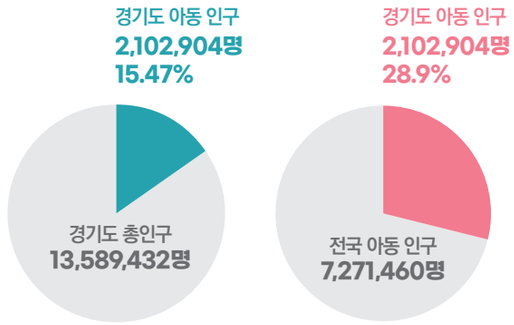
경기도 총인구	0~17세 아동 인구	아동 인구 비중
5.4% 증가	**7.0% 감소**	**11.8% 감소**

나. 경기도의 아동 인구 증감률

경기도의 총인구 증감률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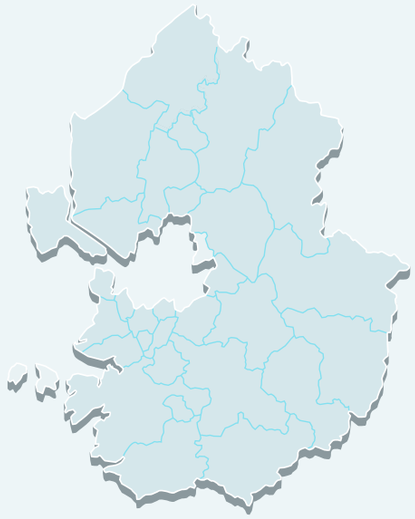
아동 인구 증감률 **3위**

그러나 총 인구 중 아동 인구 비중의 증감률 **10위**



다. 경기도 시·군별 아동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 2022년 12월 기준)

파주시 84,441
양주시 39,517
의정부시 63,688
김포시 92,515
고양시 153,493
부천시 100,924
광명시 43,407
과천시 13,316
군포시 36,662
안양시 76,129
시흥시 86,227
의왕시 22,778
안산시 83,467
수원시 177,600
오산시 40,453
화성시 184,889



연천군 4,584
포천시 16,187
동두천시 11,803
가평군 6,387
남양주시 123,664
구리시 26,250
하남시 57,280
성남시 129,472
광주시 59,822
양평군 14,550
용인시 185,022
여주시 13,958
이천시 34,120
안성시 26,202
평택시 94,097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사업 현황

가.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초등 10개소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78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252개소
	학교 돌봄터	초등 8개소 31교실
보육정책과	아이사랑 놀이터	미취학 82개소
가족다문화	경기육아 나눔터	초등 저학년 36개소
	공동육아 나눔터	18세 미만 40개소
	아이돌봄사업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31개 시·군

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고학년 ~ 중학생 63개소
도서관 정책과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초등 75개소

다. 사회적경제국

공동체 지원과	아동돌봄 공동체	초등 이하 43개소

경기도 아동돌봄사업이란?

추진 배경

- 맞벌이 가족 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기관 확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기능 필요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운영체계 개편 및 시·군 확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시·군 단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추진 근거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추진 경과

2019
- 경기도형 돌봄 체계 구축방안 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아동돌봄사업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탁기관으로 선정

2021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 개소 및 운영
- 3월: 광명(복합형), 파주(산업도시형), 화성(도시형)/ 8월:여주(농촌형)

2022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3개년 성과 공유회 개최

2023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체계 개편(도 직영 → 시·군 운영)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10개 시·군 확대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발족

추진 방향 및 체계

가. 사업 운영 방향

-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 돌봄기관 간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한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돌봄 인력 실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지역 수요를 고려한 아동 양육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자 돌봄 부담 완화
- 아동의 권리 및 행복권 증진을 위한 돌봄 콘텐츠 개발·제공

나. 비전과 미션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	비전 / 미션	수요자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공백 및 격차 해소

다. 추진체계

경기도 아동돌봄 광역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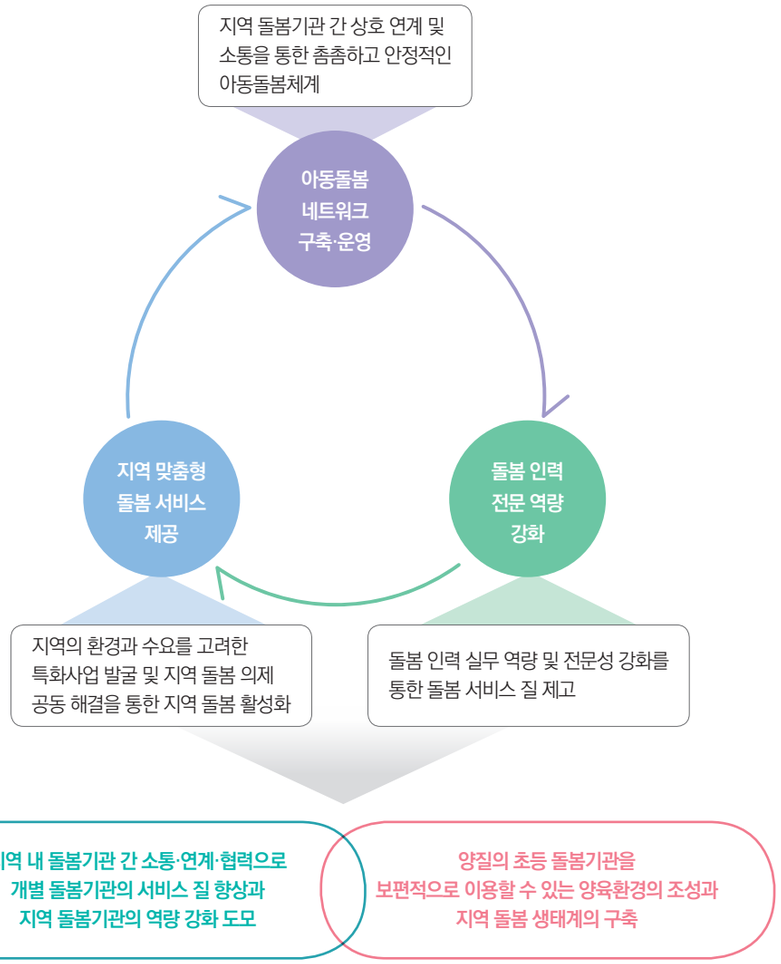
경기도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기준 마련 • 참여 시·군 선정 • 시·군 협력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경기도 아동돌봄 광역지원단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도-시·군-센터 등 광역협의체 회의 운영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센터 운영 컨설팅 • 홍보 및 우수성과 확산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관리·감독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계획 및 결과 승인 • 예산 교부 및 결산 관리 •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 지역 돌봄 네트워크 운영 지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지역 초등돌봄 플랫폼 구축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 돌봄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 돌봄 콘텐츠 개발 및 연계 • 추진 실적 관리 및 보고 (센터→시·군 지자체 및 지원단)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정의와 역할

• 기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 및 지원, 지역돌봄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형 돌봄시설

아동돌봄기관 간 협력·연계·조정으로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돌봄기관 간 소통·연계·협력으로 개별 돌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돌봄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양질의 초등 돌봄기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조성과 지역 돌봄 생태계의 구축

사업 운영

가. 공통사업

• 경기도 내 지역거점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아동돌봄 생태계 조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으로 수행하는 사업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 돌봄기관 네트워크 회의
- 돌봄협력사업 TF 정기회의
- (권역별) 돌봄 실무자 간담회
- 종사자 자조모임
- 유관기관 방문
- 신규 네트워크 협력기관 발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돌봄 실무 역량강화 교육
- 소진예방 교육

자원안내서 제작
- 돌봄 자원안내서 제작·배포
- 예시: 돌봄기관 외 아동, 청소년, 가족, 자원봉사, 지자체 복지사업, 긴급 자원 사업 등 복지 자원 분야별 정보수록

부모 및 양육자 교육
- 부모 및 양육자 교육
- 예시: 우리아이 감정키우는 양육법, 스트레스관리, 감정경험 일지작성, 컬러를 통한 아이와 나의 성향이해

나. 지역특화사업

• 경기도 내 지역거점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지역 환경과 특성, 수요를 고려하여 실시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 내 다양한 민·관·산·학 체계와 연계 및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

- 돌봄기관 연계·협력 사업 (발표회·전시회, 창작대회, 골든벨 등)
- 아동·양육자·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 (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돌봄 콘텐츠 제공
- 아동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
- 환경 인식 개선 교육·활동
- 아동 인권 교육·캠페인
- 세계 시민 교육, 문화 다양성 체험
- 인성 교육
- 디지털 시민성 교육 미래기술·직업 교육

대시민 참여 사업

홍보 사업
- 리플렛 배부
- 카드뉴스, 뉴스레터 배부
- 웹 포스터 게시
- 언론보도 등

사업 추진 현황(2023년 10월 31일 기준)

가. 2023년 10개 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총괄 사업 추진 실적

공통 사업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강화 (초등 돌봄 네트워크 정례회의, 실무자 회의, 간담회, 업무 협약, 기관 방문 등)	104회 906명
자원 안내서 제작	지역 내 돌봄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목록화	5회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교육	돌봄 종사자 욕구기반 직무역량·소진예방 교육	41회 1,197명
부모·양육자 교육	양육부담 경감 및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 도모	15회 361명

지역 특화 사업

돌봄 콘텐츠 제공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 (강사 파견, 프로그램 연계, 방학체험활동, 아동 봉사단·공연 등)	415회 4,863명
대시민 참여 사업	아동·양육자·지역주민 등 대시민 참여를 통한 '돌봄'의 가치 공유 및 인식개선(지자체 행사 부스 운영, 전시회 등)	16회 5,957명
지역거점 사업 홍보	지역별 홍보 리플렛 제작, 웹 제작·정비, 언론보도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36회
기타 강사 양성 등	강사양성교육 및 신규기관 인큐베이팅	26회

총계 250개 기관 | 완료 658회 | 참여자 13,284명

나. 공통사업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네트워크 구축 현황

10개 지역 내 아동 돌봄 관련 시설 250개 기관 협업
250개 기관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참여자 총 13,284명
※ 250개 기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꿈터(초등학교), 돌봄형 작은도서관, 돌봄 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등

• 종사자 역량강화·소진예방 교육

돌봄 시설 운영·관리	재무회계교육, 소방안전 교육, 인사노무 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돌봄 인력 직무 역량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발달 및 부모상담 기법, 아동 놀이 이해, 아동특성 및 ADHD, 디자인플랫폼 교육, 아동 사례 관리 및 슈퍼비전
돌봄 인력 소통 증진·소진 예방	원예치료,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돌봄 교사 브런치 데이, 차담회, 단체 영화 관람, 공예체험

다.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제공(강사 파견 및 프로그램 연계)

환경 교육	환경 교육,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아동 인권	아동권리 프로그램, 놀이 캠프, 놀잼꿀잼 놀이활동
아동 정서	성품교육, 마음자람 프로젝트, 아동상담 프로그램
특기 적성	힐링 뮤직, 진로 탐색, 코딩&플레이 프로그램, 동요 배우기
현장 체험	산촌체험 일일캠프, 역사지 탐방, 물놀이 체험, 슬기로운 방학 생활, 문화예술 공연관람

• 대시민 참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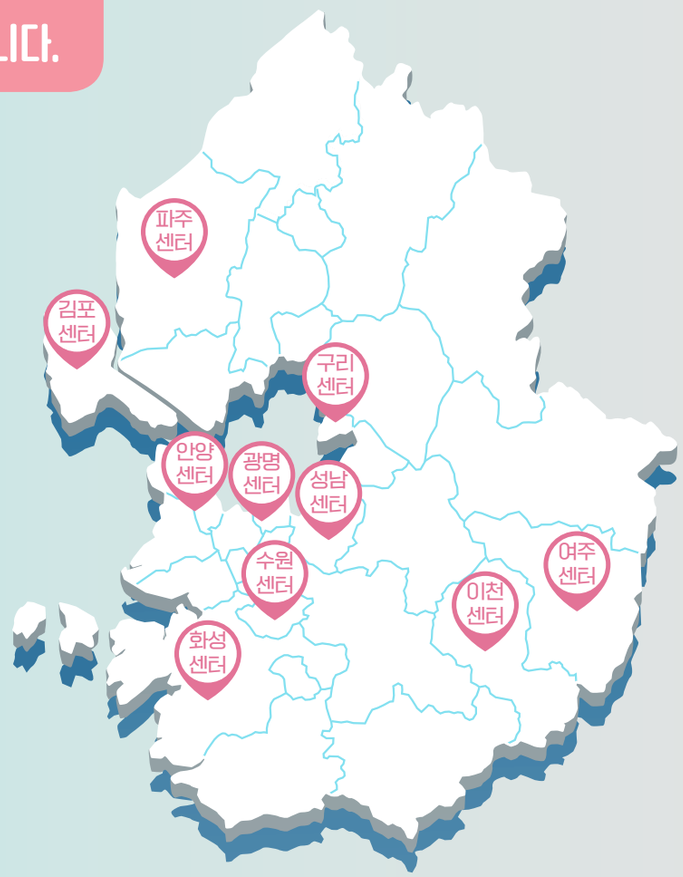
돌봄기관 연계	아동권리의 날 기념 사진전, 어린이 선언, 동요제
지자체 축제·행사 연계	어린이 날 행사, 그림 전시회, 지자체 행사 부스 운영(시민축제, 지역특산물 활용 체험, 만들기 체험)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례

▶ 변화

10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
(다함께돌봄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시 양지로 16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어린이도서관 내
☎ 070-4251-7945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
(다함께돌봄 5호점 명학)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56 스마트케어하우스 4층
☎ 031-444-3888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
(다함께돌봄 1호 갈매)
구리시 갈매중앙로 80 갈매복합청사 3층
☎ 031-573-2422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다함께돌봄 오학점)
여주시 여양로 313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내
☎ 031-882-1255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
(우리아이행복돌봄 선수점)
김포시 유현로 200 UZ센터 1층
☎ 031-987-8341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
(다함께돌봄 갈산현진에버빌)
이천시 안흥로 60 (갈산동 현진에버빌 3차Apt)
☎ 031-633-1210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
(다함께돌봄 24호점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어린이식당)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97, 1층
☎ 031-758-1876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
(운정행복센터 다함께돌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행정동 2층
☎ 031-948-5154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
(다함께돌봄 9호점)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오목천동,
수원권선꿈에그린아파트)
☎ 031-297-9176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다함께돌봄 향남)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18단지 관리동
☎ 031-8058-0272

놀 권리 속에서 조화롭게 아동을 키우다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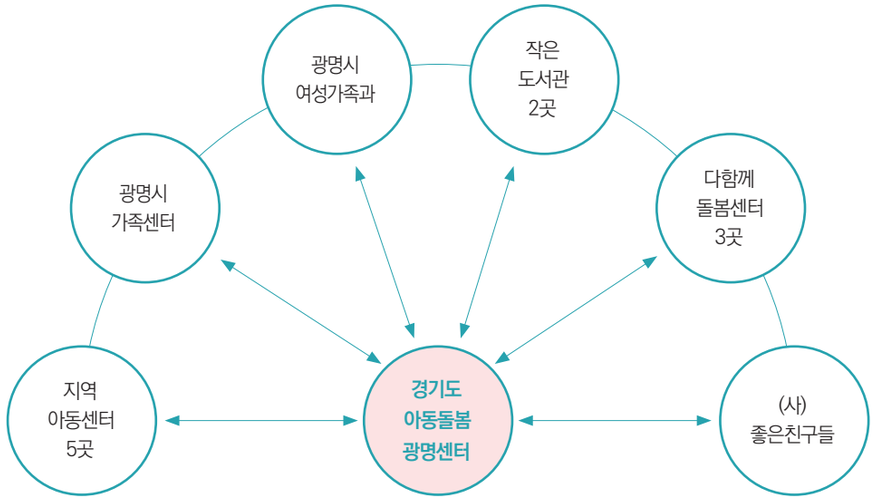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간담회, 정기회의, 평가회의, 실무자 간담회)
- 홍보(자원 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 부모·양육자 교육
  (부모-자녀 기질검사를 활용한 우리 아이 강점 키우는 양육법)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아동 놀이캠프, '놀이문화' 프로젝트)
- 대시민 참여사업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탄소중립실천의 날)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는 지역 내 초등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돌봄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광명시 환경과 특성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사자 지원을 통해 '함께 돌보는' 광명형 아동돌봄 협력 생태계 구축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공통사업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모 및 양육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은 아동의 삶의 못자리로 건강한 성장에 밀접하고 중요한 환경이며 그 안에서 부모와 양육자의 역할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을 바탕 아래에 '부모-자녀 기질검사를 활용한 우리 아이 강점 키우는 양육법'을 주제로 한 부모 및 양육자 교육은 부모와 자녀의 기질검사 진행을 통한 결과지를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 유형별 특성 이해 및 부모-자녀 간 기질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훈육, 학습, 놀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명시 아동돌봄 문제 공동대응의 관점에서 '일상 속 놀이 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확산 도모'를 목표로 '아동놀이캠프 사업'을 추진하였다. 놀이란 아동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과도한 학업 속에서 놀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아동의 긍정적인 신체·심리·인지 발달과 건강한 성장,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안에서의 놀 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광명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진행된 아동놀이캠프를 통해 코로나19 이후로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을 알려준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속에서 돌봄기관은 놀이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과 배려, 규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네 차례 '아동놀이캠프'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아동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기획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과 진행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포스터를 활용하여 기관과 부모의 흥미를 유도해 참여율을 높였다. 8월에 진행된 아동놀이캠프는 무더위와 안전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자원인 체육관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10월에는 계절감을 살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철망산공원에서 미니운동회로 진행되었다. 거리가 멀어 진행장소로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참여자들의 추가 진행 요청과 높은 만족도는 학원 일정 조정을 통한

아동놀이캠프 참가율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놀이에 대한 기대감 제고와 부모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좋은친구들, 가족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간담회와 정기회의, 실무자 간담회 진행을 통해 관계망 구축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거점센터와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고, 광명시 행사에 참여해 거점센터로서의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4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을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트워크 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만족도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하여 특화사업 중 이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진행 예정이다. 또한 문해력 및 표현력 향상을 통한 공동체 생활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학교 수업으로 교육격차 감소가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에게서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기본 생활 규칙 및 문해력과 표현력의 저하, 공동체 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돌봄기관은 안전한 돌봄을 기본으로 공동체 활동, 창의력 향상, 지속가능발전(생태 및 환경실천) 등 특성화 프로그램, 아동의 학습 및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동의 체계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ni Interview

최○○ (부모교육 참여자), **문**○○(놀이캠프 참여자), **배**○○(현진 꿈꾸는 작은도서관, 소진예방교육 참여자)

- 아이들과 방학을 보내고 너무나 지쳐있을 때 '삶의 위로를 주는 영국 차문화로의 초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해소법, 차문화 체험을 통해 '아, 힐링이란 이런거구나' 하며 행복했다.
- 부모 교육은 다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한방에 깨트리는 교육으로, 너무 궁금하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된다.
- 앞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의 경험과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놀이캠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아동놀이캠프

우리들의 세상! 신나게 놀아보자~

#탄소중립실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아동놀이캠프

잉차잉차~ 우리편 이겨라! 오늘도 열심히 온몸으로 뛰어노는 신나는 놀이캠프랍니다.

#부모교육

우리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종사자 소진 예방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홍차 문화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답니다. 차 한잔으로 힐링이 되는 순간~

#네트워크 간담회

아동돌봄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된답니다.

함께 키우고 서로 돌보다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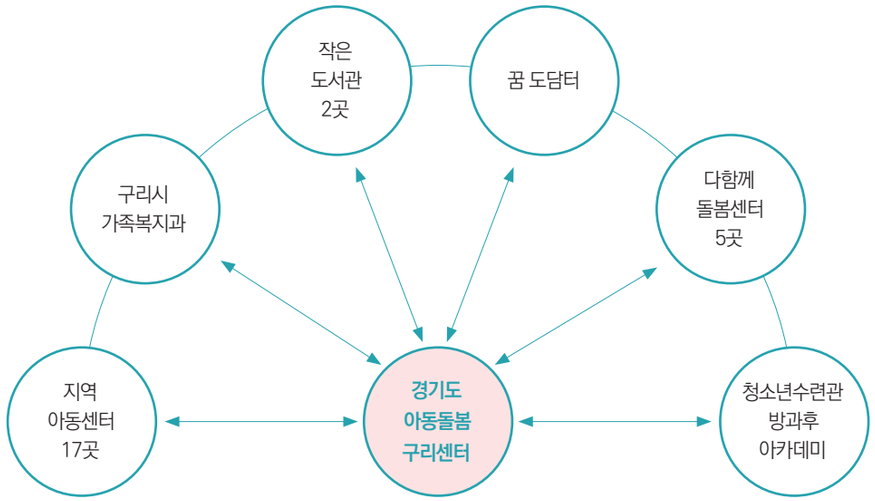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초등돌봄 네트워크 회의, 실무자 평가회의, 협약식)
- 홍보
  (홈페이지 제작, 보도,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직무교육, 수퍼비전, 원예치료, 영화관람)
- 부모·양육자 교육(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갈매마을환경실천단과 함께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대시민 참여사업
  (시민의 날 전시회, 마음자원순환 캠페인)
- 특색 사업
  (책놀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교육&파견)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다양한 아동돌봄기관이 협력하고 있는 구리 지역의 거점센터로 맞벌이 가정이 아동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관내 아동돌봄기관을 하나로 이어주며 그들의 발전과 성장을 함께하고자 한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센터는 무엇보다 올 한 해 지역 내 여러 돌봄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4월 처음 사업 시작 후 5월에 열린 첫 간담회 당시 지역의 모든 아동센터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것에 고무되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거점사업에 대한 취지와 방향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어진 부정적인 발언으로 당혹감과 긴장 등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것에 뜻이 있다는 다짐으로 이후 총 5회의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했고, 그 외 시간에도 계기를 만들어 곳곳을 찾아가며 서로의 오해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업에 협조도 해주고 작은 일에도 격려를 보내주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 특히 '구리시민의 날 기념 전시회' 때는 초반에 네트워크에 회의적이었던 지역 아동센터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고, 다른 네트워크 기관들과 함께 연합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한 '책놀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올 한 해 비교적 길게 진행된 사업으로 구리시 주민,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비록 참여자가 8명이라는 적은 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강사 수료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놀이 수업을 직접 진행할 생각에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양육자에서 아동 전문 강사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기혼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수료 과정을 이수한 검증 된 강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놀이를 제공하여 돌봄의 질적 향상을 높이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책놀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구리시는 초등 저학년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인 만큼 여성 양육자들의 일자리 욕구가 많다는 특성을 살려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이것이 바로 구리시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프로그램 시작 때 센터에서 책놀이를 진행하는 전문 강사님을 섭외하여 여러 차례 자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많은 이들이 이 양성 과정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역 맘카페에 가입해 협약을 맺고 사업 홍보를 했다. 또한 구리센터가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시청 건물에 있어 홍보 포스터와 배너를 설치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올해 처음 개설한 과정에 8명의 수강생이 지원했고, 결원 없이 끝까지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이 늦게 진행되어 시간의 한계 때문에 수강자들에게 수업 시연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아이들을 다루는 노하우 등 원활한 수업을 위한 시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리시는 초등돌봄 네트워크 기관뿐 아니라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인근대학 등 돌봄기관 간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 중복 사업에 대한 조율과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무엇보다 돌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회의 출석률이 높아 돌봄관련 공동 이슈나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한 협력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책놀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가 아닌 심화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회기도 올해보다 더 늘렸으며, 충분한 수업 시연과 교안작성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현장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자조 모임 공동체인 '갈매마을 환경실천단'과 함께 협업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는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은 갈매 지역의 환경을 위해 뜻을 모은 단체로 여러 환경 활동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는 대시민 참여사업으로 아동권리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구리시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아동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동과 관련된 지역 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차별없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Mini Interview

함○○(다함께돌봄센터 갈매 돌봄교사)

-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원예치료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종사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좀 더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견학이나 캠프처럼 말이다.
- 현재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가 아직은 거점센터로서 어떤 일을 중재하거나 중추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엔 힘이 다소 약해보인다. 2024년에는 좀 더 정책적으로 나서주어 모든 초등돌봄기관이 하나되어 새로운 돌봄모델, 돌봄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좀 더 자유롭게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구리 시민의 날 전시

내가 살고 있는 구리시를 소개합니다~ 작은 손으로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도시랍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분리배출의 원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아요.

#부모교육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열혈 부모님들의 열혈 교육현장!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아동돌봄 현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이지요.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역량을 높이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회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 구리시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랍니다. 오늘도 바쁘게 이어지는 네트워크 회의 릴레이 현장!

#종사자 소진 예방 원예치료

아동돌봄의 최일선에 있는만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다듬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지요. 오늘은 초록이들과 함께 마음 힐링 중이에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삶을 응원하다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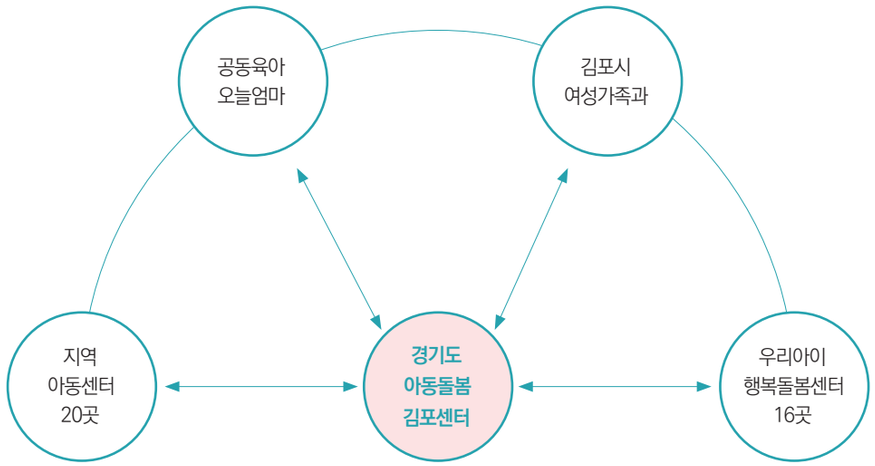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센터방문 및 네트워크 회의,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
- 홍보
  (자원안내서 제작, 리플릿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역량강화교육,힐링캠프)
- 부모·양육자 교육

지역특화사업

- 대시민 참여사업
  (김포어린이날 행사)
- 특색 사업
  (김포역사교육, 환경캠페인과 환경정화, 환경정화 아동봉사단 등 환경교육, 환경교육-비누만들기)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23년 4월 개소하여 김포시 내 지역아동센터,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돌봄공동체 등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아동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시설 관계자들의 노력과 지역 내 돌봄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거점센터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초등돌봄 시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 김포시청 돌봄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초등돌봄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거점센터와 사업을 안내해 돌봄시설 간의 네트워크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거점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거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대시민 참여 행사인 '2023 김포시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해 김포시 아동돌봄센터 현황 리플렛 500부를 배포했다. 함께 운영한 체험부스에 많은 초등학생과 부모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지역 내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여 돌봄시설을 홍보하는 것은 의미있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돌봄시설 홍보 활동을 진행해 김포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우리는 역사, 환경, 성품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각 돌봄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돌봄 콘텐츠 사업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우리만의 차별화된 사업은 역사교육과 환경교육이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김포시 담당 부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 돌봄시설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역사교육은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과 연계해 진행하여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환경교육 역시 지역 내 공방과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 교육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활동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고,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이 각 돌봄 시설별로 진행됨에 따라 서류 취합이 어려웠다.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서류의 중요성과 제출에 대해 안내했지만, 빠른 취합이 어려워 사업 평가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업 운영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 프로그램 기획 시 욕구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2024년에는 욕구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봄 유관시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각각의 돌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에 진행한 환경교육인 제로 웨이스트 체험활동과 김포시 아동봉사단 사업(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보존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2024년에도 실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가 넓은데 다문화 가정 이용률이 높은 센터가 2곳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 이용 비율을 정확히 파악해 맞는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와 아동돌봄광역지원단, 그리고 김포시 담당 부서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어 업무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고촌복지회관점 센터장)

- 돌봄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아동을 함께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종사자는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아동은 직접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김포시 역사 프로그램과 성교육이 인상적이었다.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이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었고, 종사자로서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방향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춰 도움을 주고, 사회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부모의 자질과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국한하지 않고 확장해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김포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성교육&디지털중독예방교육

나의 몸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지 배우는 매우 뜻깊은 시간!

#역사체험활동

우리 김포시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고? 새롭게 배워가는 김포시의 역사는 너무 재미있답니다.

#환경교육&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환경교육도 받고 천연비누도 만드는 1석 2조의 시간!

#종사자 희망이음시스템 교육

쉿! 오늘은 돌봄기관 종사자들이 희망이음시스템교육을 받고 있는 진지한 날이랍니다.

#종사자 아로마천연샴푸바 만들기

돌봄현장에서 힘써 일하기 위해선 마음을 힐링하고 스트레스 시간도 필요한 법! 아로마천연샴푸바를 만들며 향기로 힐링했답니다.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대시민 참여 행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린 홍보리플렛을 좀 보세요. 우리 김포시에도 이렇게 많은 돌봄기관과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함께 걷다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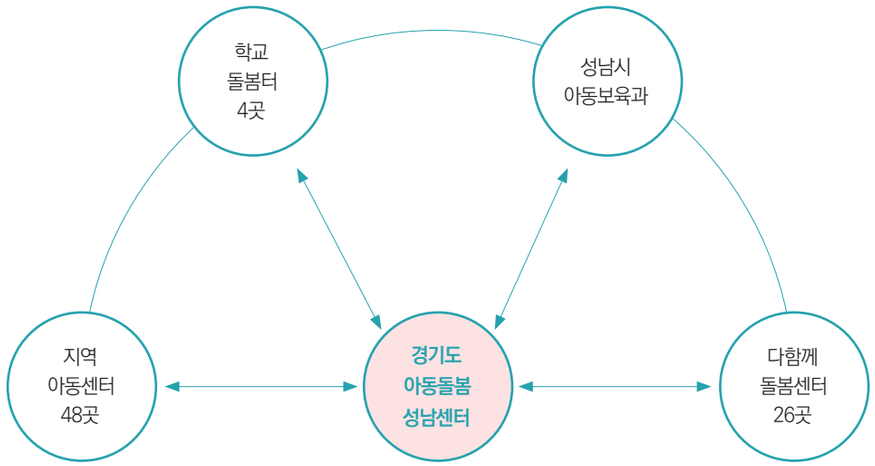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아동돌봄TF팀 구축 및 운영)
- 홍보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역량강화교육, 힐링교육)
- 부모·양육자 교육
  (약점렌즈를 버려라, 강점 기반 자녀 소통법)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 대시민 참여사업
  (2023 성남 사회복지 박람회 참가 홍보)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24호점에서 2023년 8월에 개소식 이후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초등돌봄 거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 26개소, 학교돌봄터 4개소, 지역 아동센터 48개소가 함께 협력하며 경기도형 초등돌봄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약점 렌즈를 버려라! 강점 기반 자녀 소통법'을 주제로 성남시 초등돌봄시설 종사자분들과 아동돌봄기관 이용 아동의 학부모,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공통사업으로 추진했다. 강점을 통해 자녀의 고유함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소통을 이어가며, 아동이 재능을 강점으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은 강의가 평일 저녁이어서 학부모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었다. 이 점을 성남시 담당 부서와 공유하며 적극 홍보하고 참여 대상자를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약 75명의 학부모들과 종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 연계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음악공연을 이벤트로 마련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도 만들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성남시 사회복지의날'에 대시민 참여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성남시의 50주년과 2023년 사회복지 날 맞이 복지시설, 기관, 자원봉사 및 일반 시민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내 주민들에게 아동돌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동돌봄 기관을 홍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식당),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기관 현황을 지도에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해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체험활동을 제공하면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 자리를 통해 부모님들이 지역에 있는 돌봄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특별히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린이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사실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당시 에코백과 머그컵을 디자인하는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이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었으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오래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 초등돌봄시설 홍보와 안내에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이 외에도 성남시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8월부터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거점 네트워크 TF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나온 안건은 각 기관에 소속된 센터장들의 온오프라인 소통망에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반영하여 추진해 왔다. 아동돌봄광역지원단에서 추진된 컨설팅을 통해 초등돌봄 거점 사업 운영에서 지역 네트워크 관계 형성의 중요성, 참여 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정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24년도에는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다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제작한 자원안내서에 성남시 초등돌봄시설 78개의 자세한 위치와 기관 정보를 수록하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간략한 사업 내용 등도 포함했으나, 일부 아동·청소년 유관기관들에 대해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2024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전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을 자세히 조사하고 탐방하여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다양한 돌봄 네트워크와 유관기관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78개소와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시설 기관에 직접 방문해 거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024년 사업 계획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돌봄기관 이용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실무자와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Mini Interview

최○○(성남시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 센터장),
장○○(다함께돌봄센터 26호점 센터장)

-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좋았다. 강사의 전문성과 친밀한 소통법으로 개인의 성격 분석과 테스트를 통해 학부모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부모 자신의 자아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 10월 마지막 날 예술·문화가 함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은 딱딱할 수도 있는 교육 현장을 유연함과 웃음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 것이 좋았다.
- 부모 교육 대상이 저학년 맞벌이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만큼 저녁 7시는 부담스러운 시간대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 부모 자신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는 좋은 시간이었으나 개인의 성격 분석학적인 내용으로만 국한된 점은 아쉬웠다. 좀 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싶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성남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장에서 고사리 손으로 예쁘게 꾸미고 있는 에코백들이랍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머그컵도 만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회용품을 지양하고 머그컵을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약점 렌즈를 버려라!

양육자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시간. 하나라도 놓칠새라 귀를 쫑긋 세우고 열혈 청강 중입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아동돌봄 종사자들 역시 필요한 덕목들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중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종사자 힐링교육

때로는 돌봄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힐링도 필요하답니다. 몸과 마음을 모으고 잠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볼까요?

#종사자 힐링교육

잎 하나, 꽃 한송이가 완성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역시 꽃이 핀답니다. 이제 이렇게 피운 마음으로 다시 아동돌봄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아동돌봄 연결망을 통해 아동의 안전망이 되다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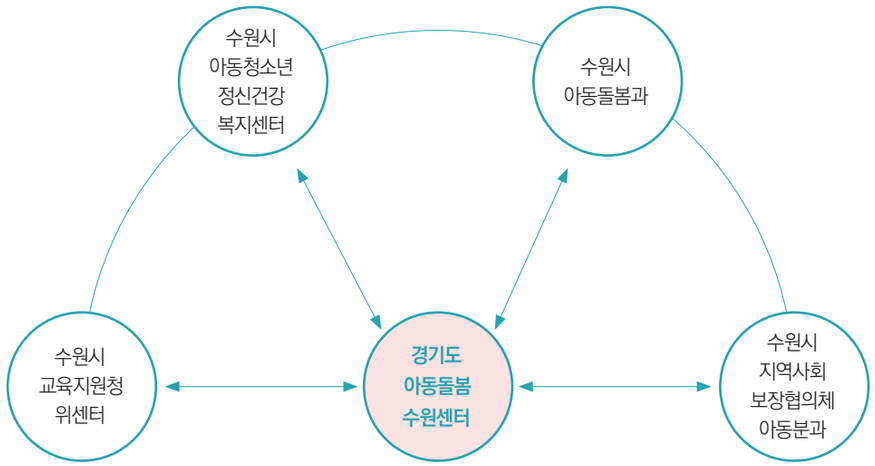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거점사업 TF정기회의,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홍보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 부모·양육자 교육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아동프로그램 지원, 수원시 홈페이지 내 아동돌봄기관 안내 콘텐츠 구축)
- 대시민 참여사업
  (아동박람회 유관기관 연계참여)
- 홍보
  (리플렛&뉴스레터 제작, 보도, 돌봄기관별 포털사이트 정비)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수원 오목천동에 위치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이 수원시 아동돌봄기관들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수원시 아동돌봄 기관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자원안내서 제작에 큰 중점을 두었다. 방과후 돌봄기관, 아동과 관련된 기관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정보도 함께 담으려고 했다. 그동안 돌봄기관에서 요청이 많았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의견은 예산 문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2023년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에 아동돌봄기관 안내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여 리플렛 형태의 지원안내서 내용을 게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아동돌봄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부모교육은 아동돌봄기관에서 진행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일 오전이나 퇴근 후인 저녁에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교육은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유관기관과의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획 과정에서 유관기관들과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상자 모집과 홍보를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진행하고, 장소사용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 부모교육 외에도 대시민 참여 사업 역시 유관기관들의 행사에 거점센터 부스를 신청하여 행사장소와 참여인원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우리는 대시민 참여 사업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행화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수원시 방과후 돌봄지도(리플렛)와 자원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한 리플렛을 참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스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리플렛 제작시 현행화된 정보를 수집할 때 기관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아동분과 위원들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에 이어서 대시민참여사업과 돌봄콘텐츠 제공 사업, 돌봄기관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참여 사업을 통해 거점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 역할을 감당해 나가려고 한다. 특히 돌봄 콘텐츠 제공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돌봄광역지원단에서 거점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 및 동협의체 위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므로 2024년에는 더욱 탄탄하게 사업들을 꾸려 나가리라 기대한다.

Mini Interview

김○○(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센터장)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했었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진행하여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과 아동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는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여 하루 정도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었으면 한다.
- 2023년 프로그램은 참석에 부담이 없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2024년에는 더 확대된 프로그램을 기대한다.
- 2024년에는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가 아동과 종사자 모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의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주길 바란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음악테라피

온몸으로 듣고 느끼는 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하고 있는 재미있는 음악테라피 시간!

#대시민 참여 사업

시민들에게 수원시 아동돌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중이랍니다.

#네트워크 회의

수원시 아동들을 위한 아동돌봄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다양한 홍보 활동과 아동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현장!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아동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매우 필요한 역량들을 열심히 익히고 있답니다.

#종사자 소진 예방

아동돌봄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베테랑이지만, 우리끼리 모이면 또 하나의 아이가 되는 법! 즐겁게 힐링중~!

마음껏 뛰어노는 문화예술공감 놀이터를 꿈꾸다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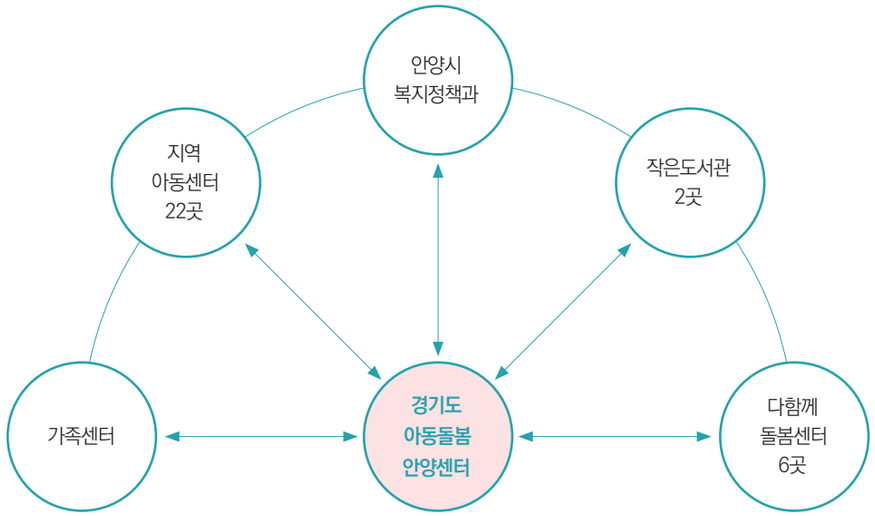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초등돌봄 실무자 간담회)
- 홍보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기관장 대상&종사자 대상 교육, 그룹코칭)
- 부모·양육자 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놀이문화 교육)

지역특화사업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안전교육, 아동성장프로그램, 힐링뮤직클라스, 진로탐색, 놀이문화, 코딩&플레이 프로그램, 일일캠프 산촌체험, 안양역사탐방체험
- 대시민 참여사업
  (안양시민축제, 미디어축제 명학마을관리, 문화예술공연관람,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지역 내 초등돌봄 공동체와 협력해 돌봄 관련 정보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센터로 안양 지역의 다양한 돌봄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통사업과 안양지역만의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가장 중점을 둔 목표는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기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과 행사 등을 함께하여 안양시만의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가장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각 기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안전교육, 아동성장, 코딩교육, 힐링뮤직 등 여섯 개의 프로그램을 각 기관에 맞게 지원하고자 안내하였으나, 아동 힐링뮤직을 많이 선택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였다, 힐링뮤직 프로그램은 한 기관당 총 5회차로 음악전문강사가 파견되어 가창지도 및 음악교육,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힐링뮤직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아동의 마음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자주 만나기 위해 회의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3번 진행하였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인 사업은 '안양춤축제' 부스 참여다. 올해 이 행사를 통해 돌봄자원안내서와 리플렛을 배부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를 알렸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람개비 만들기, 칭찬뱃지 만들기 등의 체험을 진행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비용대비 홍보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2024년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날이나 아동학대예방의 날처럼 아동이 중심이 되는 날에 행사를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나 즐거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시를 써서 그림 안에 넣어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활동이나 미니 체육대회같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활동 등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점점

아동권리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실 거점사업 일년차라 모르는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안양시 담당부서 역시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주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다. 내년에는 더욱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Mini Interview

최○○(안양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부림 센터장)

-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만 시행하다가 거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어 좋았다. 또한 센터 종사자 간에 교류도 하게 되었고, 아동들이 참여하는 공연관람까지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 현재까지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 입소 시 우리 센터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까지 한다는 이미지를 주어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미지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안양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놀이영어 수업

즐겁게 놀며 배우는 영어~ ABCDEFG~ 다음은 뭘까요?

#힐링뮤직클라스

도레미파솔~ 우리 모두 몸은 바르게, 목을 가다듬고 다시 불러봅시다.

#산촌체험

오늘은 내 손으로 찐빵을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맛있을까요? 조물조물 짜잔~

#안양춤축제

우리 안양시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아동돌봄 기관이 있답니다. 이렇게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종사자 소진 예방

아동돌봄 현장의 프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학생이지요. 열심히 가죽을 만들고 다듬으며 힐링중이랍니다.

#기관장 교육

아동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사업,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며 아동을 위해 걷다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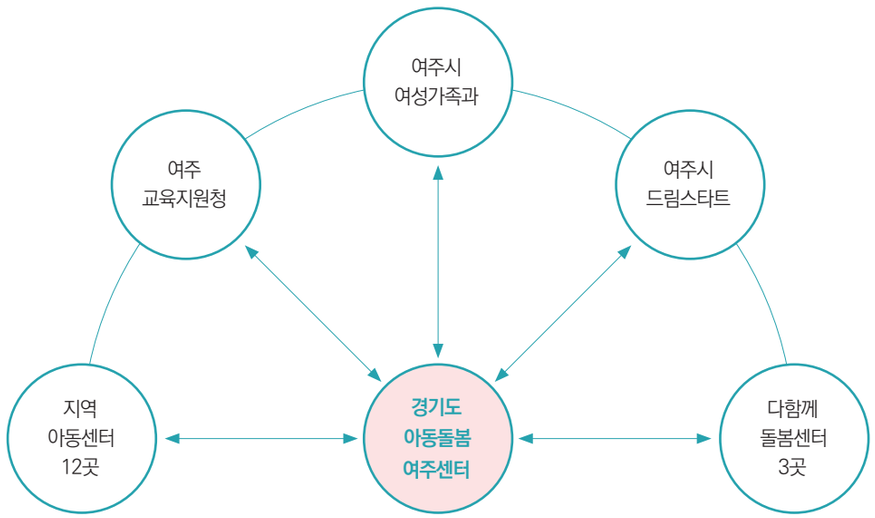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초등돌봄 네트워크 회의)
- 홍보
  (자원안내서, 자원안내&강사인력풀 제공)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 부모·양육자 교육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겨울&여름 방학 특강프로그램)
- 대시민 참여사업
  (해피데이, 어린이 300인 선언, 사진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 홍보 사업
  (리플릿 제작, 지역신문 보도)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여주시 초등돌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돌봄 현황과 돌봄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기관 종사자의 소진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도형 초등돌봄 거점사업 운영시설이다. 또한 현재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오학점에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주시 내 다양한 초등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돌봄 자원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관내에 있는 초등돌봄 기관이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마다 방문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초등돌봄 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지역 연계사업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1~2월)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따라 2월부터 진행한 '슬기로운 방학생활 I '을 예로 들 수 있다. 명성황후 생가인 황후의 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의 아동과 인솔교사 172명이 방문해 전통매듭공예, 투명 양초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사진 콘테스트 등 풍성한 야외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 여름방학에는 '슬기로운 방학생활 II '를 썬밸리 호텔 워크파크에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이용 아동과 인솔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I '의 경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네트워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받아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101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어른은 생각하지 못한 아동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이에 관내 중심지인 한글시장에서 어린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여주 어린이 300인 선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사전 프로그램으로 '여주사람들'에 소속된 강사가 13개 초등돌봄 유관기관에 방문해 여주시 또는 세상에 바라는 아이들의 생각을 재활용 가능한 손피켓에 담은 여주 어린이 선언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5월 2일 행사 당일 참여한 아동 중 각 기관 대표 아동 14명이 돌아가면서 어린이 선언문을 읽고 여주시장님께 전달했다.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과 한글시장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아동들은 여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센터장 1인과 거점담당 1인이 평균 100~3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또한 32회의 공통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도 느꼈다. 물품 구매나 네트워크

회의 진행,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차량 지원비 제공 없이 자부담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여주 지역 내에서도 기관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관과 기관의 연대 관계를 위해 잦은 방문이 진행되어야 할 경우 거리 문제나 차량 문제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네트워크 기관을 방문해 거점사업에 대한 개별 기관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모았다. 이후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관의 애로사항과 기타의견, 여주시 초등돌봄에 대한 논의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점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네이버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에 진행한 '행복한 여주 어린이' 사진 전시회를 2024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여주시민들이 여주에 있는 돌봄센터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이에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에도 기관 홍보와 소개를 목표로 하여 한 차례 전시회를 진행하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을 종사자 역량 교육 중 하나로 새롭게 예정이다.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돌봄교사와 생활복지사가 수시로 사진을 찍었지만 전시회 작품으로는 퀄리티가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물 사진 찍는 법,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법 등 일상생활과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Mini Interview

안○○(여주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교사),
김○○(사마리안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부모 교육의 경우 부모님들이 딱딱한 강의식 교육을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체험활동을 겸한 덕분에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며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 주기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다른 기관들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서 좋았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재충전 기회가 되어 좋았다.
- 앞으로 돌봄기관이 연합해 '아나바다 장터 마당' 같은 것을 열어서 기관마다 쌓여 있는 물건들을 교환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또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부족한 체육 시간을 대신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동권리교육같은 돌봄기관 아동 필수교육을 강사 섭외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 등이 내년에 보완되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어린이 300인 선언

우리 어린이도 한 명의 시민이랍니다. 여주 어린이 300인의 선언을 보아주세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I

우리는 오늘 달고나도 만들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면서 매우 즐겁고 유익한 겨울방학체험중이랍니다.

#행복한 여주 어린이 사진 전시회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행복한 여주 어린이 사진 전시회에서 만나보아요.

#여주 평생학습 주민자체 축제

부스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부채를 만들고 있답니다.

#종사자 소진 예방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아동돌봄 최일선에서도 활약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열심히 마음 힐링중~

#네트워크 회의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아동돌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정보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는 시간!

지역 자원과 소통으로 아동을 돌보다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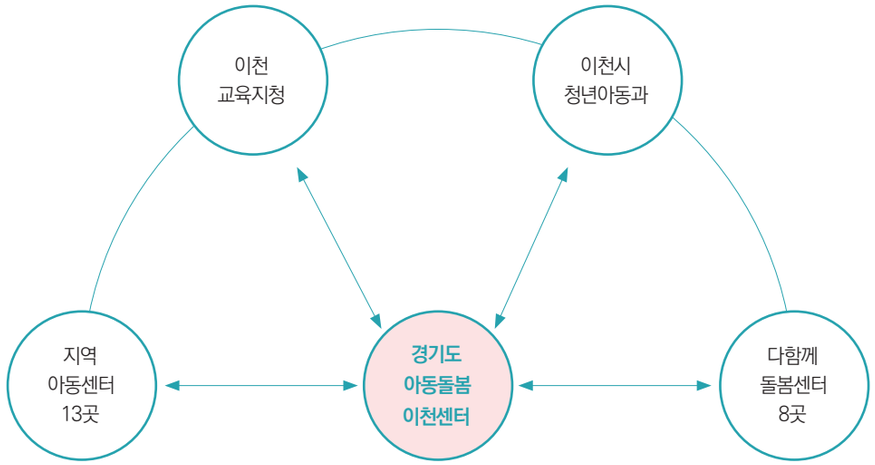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초등돌봄 협의체 회의, 업무협약)
- 홍보
  (캘린더 형태의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아동권리교육, 아동상담프로그램, 이천쌀찐빵체험 및 나눔, 숲놀이체험)
- 대시민 참여사업
  (전시회 부스 운영)
- 홍보 사업
  (보도자료)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23년 4월 12일 시작된 이천센터는 이천 지역에 촘촘하고 탄탄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천시 교육지원청(초등보육전담사) 등 이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필요와 불필요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금 느려도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의견과 욕구를 취합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단위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이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고, 네트워크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공통사업인 자원안내서의 경우 기존의 지원안내서가 효용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네트워크 회의와 다양한 논의 끝에 테이블 캘린더 형태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자세한 지역 지도에 돌봄기관을 표시하고 기관을 목록화하여 언제든지 돌봄을 궁금해하는 보호자에게 돌봄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1년 동안 달력을 이용하면서 돌봄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돌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자원안내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천시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주제를 찾았다. 이천시! 하면 떠오르는 쌀, 도자기, 반도체 등의 다양한 소재 중 특산물인 쌀을 주제로 선택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오늘은 내가 쌀 요리사'라는 돌봄 콘텐츠를 진행했다. 우리는 아동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한 요리 활동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알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스스로 찐빵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면서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랬다.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쌀 관련 요리사업자를 섭외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각 센터와 아동들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을 통해 받는 것에 익숙한 아동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만든 찐빵을 이웃(경찰서, 소방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한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덕분에 아직 진행중에 있지만 사업을 마친 센터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사업은 네트워크 돌봄기관 21개소 모두 거점사업에 참여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다.

다만 쌀을 이용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했는데, 제빵 전문가이지만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다소 부족해 아이들에게 제빵을 가르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님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통화를 시도하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독려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잦은 전화 통화와 소통을 하는 시도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간격이 좁혀져 센터 운영의 어려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올년에 진행한 종사자 소진 예방 교육인 '힐링 브런치 데이'가 종사자들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천시에 돌봄종사자 워크숍에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2024년에는 두 사업을 연계한다면 올해보다 더 풍성하고 짜임새 있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거점센터가 생김으로써 돌봄관련 종사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1년에 한 번이지만 힐링하는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천시와 함께 꾸려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를 통해 악기나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돌봄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천시 관내의 아동관련 단체들과의 접촉점을 찾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Mini Interview

이○○(모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 중 센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교육(아동권리교육)을 아동돌봄이천센터에서 강사 섭외와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다.
- 2023년에는 거점센터가 중간에 설립되어 사업계획이 잘 세워져 있지 않아 각 센터 자체 프로그램과 겹치거나 일정이 급박하게 나와 맞추기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 2024년에는 거점센터의 네트워크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해 주면 좋겠다.
-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브런치 같은 프로그램이 참 좋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오늘은 내가 쌀요리사

제가 만든 쌀찐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내가 쌀요리사

맛있는 오색쌀찐빵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으니 더 맛있어요!

#어서와 이천쌀 피자는 처음이지?

내 손은 작지만 직접 맛있는 쌀피자를 만들거예요

#종사자 소진 예방 '힐링 브런치 타임'

아동돌봄 최일선의 베테랑이지만 맛있는 브런치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친구가 된답니다.

#찾아가는 아동상담소

그림검사와 문장완성검사 진행 중입니다.

#지원안내서

이천시 초등돌봄 지도 리플렛을 파일에 넣어 쌀피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손에 살며시 쥐여 드렸지요.

온 마을이, 다 함께 아동을 키우다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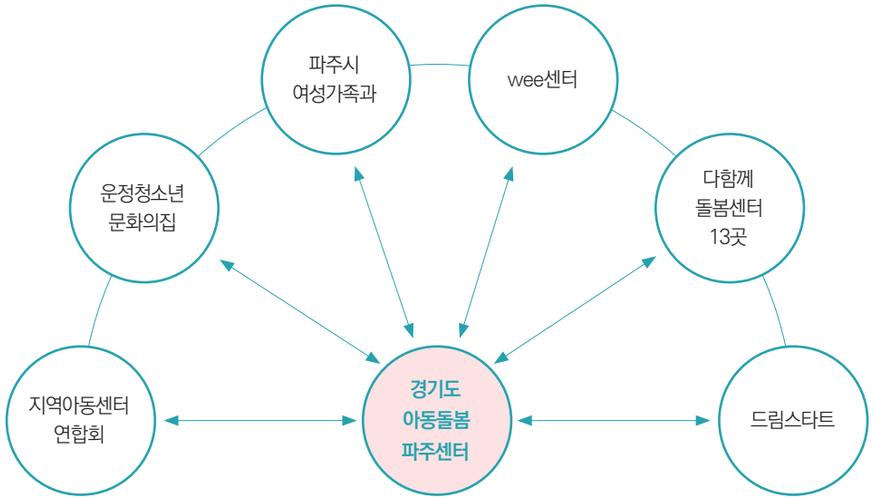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네트워크 정례회, 아동돌봄 실무자 간담회)
- 홍보
  (자원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 부모·양육자 교육
  (지역주민 동아리 활동-지역자원 연계)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프로그램 연계&음악제)
- 대시민 참여사업
  (다함께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
- 홍보 사업
  (리플렛 제작, 보도자료)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는 파주시 중심 지역인 운정에 2023년 1월 1일 개원한 곳으로 도농도시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타 기관과 다르게 아파트나 마을공동체 소속이 아닌 파주시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시설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덕분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예술총연합회, 문화원, 노인복지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체육관과 수영장 이용이 쉬우며 시설 내에 공연장까지 있어 예체능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다양한 예술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예체능 특화 돌봄센터로 구축하고자 한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지역이 함께 돌봄의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파주 지역의 거점센터로서 돌봄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공유하는 허브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중점적인 목표로 두고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사업을 통해 8월 26일 파주시 12개 다함께돌봄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지구사랑이라는 테마의 음악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500여 명의 돌봄센터 아이와 부모,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프로그램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알림과 동시에 아동 돌봄의 필요와 지역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 우리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12개 센터에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하면서 음악제를 진행하기 위해 강사를 파견하고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물론 12개의 센터가 함께 모여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준비 과정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돌봄 선생님들은 음악제를 지도하며 업무가 가중되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행사 당일에는 먼 거리에서 오는 다른 센터 아이들의 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이렇듯 처음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였기에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1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사회 내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돌봄기관의 다양성과 학교 돌봄, 지역 아동돌봄의 차이점 및 모두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파주 지역의 아동돌봄 거점으로서 분기별 네트워크 정례회의를 진행해 돌봄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또한 매월 1회씩 다함께돌봄센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특화사업 진행 시에는 각 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소통으로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연 1회 파주시에 있는 특성과 아동돌봄 자원을 안내하는 자원안내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정보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2023년 진행한 공통사업 중 종사자역량강화 교육과 센터장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2024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히 돌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소진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힐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직률을 낮추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하여 아동돌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센터 운영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이와 함께 파주시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자 한다. 지역의 지자체와 상호협력으로 사업수행에 불편이 없었던 만큼 내년도 기대한다. 우리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는 쉼이 있는 즐거운 곳이라 생각한다. 또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어린이로 자라길 바란다. 다양한 색을 가진 아동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 아동돌봄파주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아이들 작품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며 고사리손으로 조물조물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이에요!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동요제 시간.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 둘 모으면 얼마나 큰 목소리가 될까요?

#다함께~ 지구야! 사랑해!

체험 부스에서 양말목을 활용한 공예 활동 중! 버려지는 양말목이 내 손에서 쓸모 있게 변한다고?

#네트워크 정례회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참여도 독려하고 아동돌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머리를 맞댄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CPR교육

오늘은 다함께 CPR 이론교육과 실습을 해보는 날! 내 손으로 누군가의 귀한 목숨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역량 강화를 해야지요.

#종사자 역량 강화 디자인플랫폼 교육

아동돌봄 최일선에 있다 보면 여기저기 다양한 기술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어렵기만 생각했던 디자인툴을 쉽게 배우고 활용법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언제나 함께 아동을 돌보다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의 2023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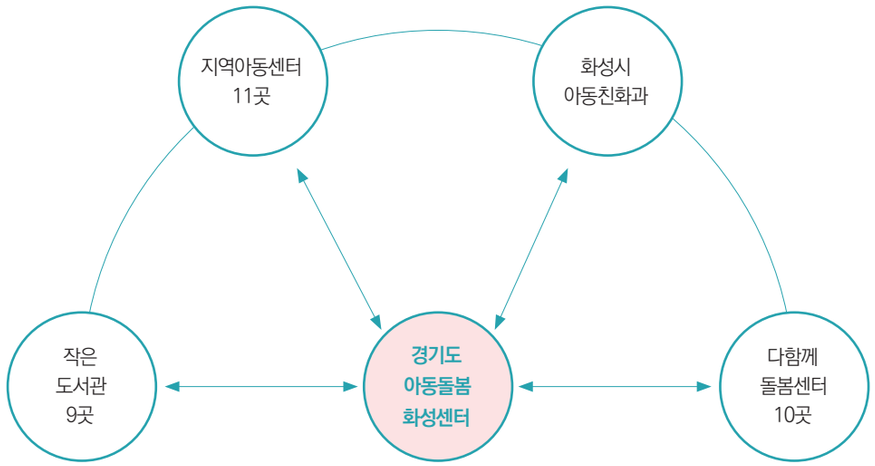
공통사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거점사업TF정기회의, 초등돌봄네트워크 &간담회)
- 홍보
  (거점 안내서 제작·발행)
- 종사자 역량 강화&소진 예방
- 부모·양육자 교육

지역특화사업

- 돌봄 콘텐츠
  (또래 간 놀이활동 놀잼꿀잼)
- 대시민 참여사업
  (아동권리의 달 기념 사진전, 아동학대 예방의 날)
- 화성시 초등돌봄센터 지원
  (신규센터 컨설팅 지원, 기관방문, 자체돌봄 프로그램)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의 연계 돌봄기관 네트워크는?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화성시 초등아동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돌봄을 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성시에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화성시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종사자들과 함께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또한 돌봄에 필요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의 놀 권리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3년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공통사업 중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거점센터로서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간의 구축망을 강화하고 아동돌봄의 질을 높이는 거점의 운영 중점적인 목표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돌봄 콘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해 또래 간 놀이활동인 '놀잼꿀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아이들이 했던 놀이를 다시 진행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성공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했나요?

아동권리의 달 기념 사진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다. 화성시에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고, 대외적으로 초등돌봄기관을 홍보하고 기관 간에 연합을 꾀할 수 있었다. 5월인 아동권리의 달에 맞춰 사진전을 계획하고 개최 장소, 사진관, 액자 견적을 찾고 웹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하고 참가신청서를 받았다. 장소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진행했다. 또한 아이들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게 액자틀까지도 고민했고, 인화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고심을 많이 했다. 우리는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초등돌봄기관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덕분에 초등돌봄기관과의 관계망을 다지고 서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다만 화성시가 큰 지역이기에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사진전을 할 것인가 선정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접근성을 생각해야 하고, 장거리 이동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늘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사진전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하고 근처에 인지한 타 시가 있어서 송린이음터를 사진전 장소로 선정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접근가능해야 아동 권리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아동돌봄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규센터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모여야 촘촘하게 돌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규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각 권역과 지역에 맞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역시 초등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센터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신규센터 컨설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 네트워킹을 하면 각 기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센터는 지원단과 지자체, 지역 단체와의 협력이 적극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에도 지원단, 화성시, 관계 단체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지역 돌봄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있지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빛에 따라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크기를 바꿔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꼭 같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보여야 할 때는 과감하게, 때로는 묵묵하게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Mini Interview

서○○(다함께돌봄향남센터 서현주 돌봄교사)

- 아동돌봄기관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주고 싶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진예방 교육을 들으면서 새로운 공예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 목공예를 배우며 힐링이 되었다. 특히 제작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부분을 배우는 것이 좋았다. 앞으로 더 많은 돌봄기관 사람들을 만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 기관에 찾아와주는 '놀잼꿀잼' 프로그램도 너무 즐거웠는데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아동돌봄화성센터의 2023년 주요 활동은?

#놀잼꿀잼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래 놀이 시간! 온몸으로 즐겁게 놀며 친구도 만나고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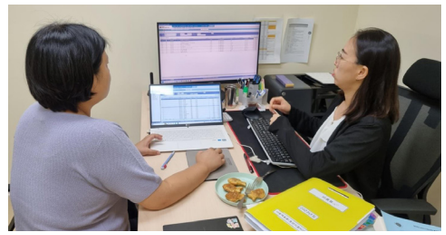
#아동권리의 달 기념 사진전

아동이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모두 모였습니다. 더불에 화성시 안에 있는 돌봄 기관들도 소개하는 자리!

#네트워크 기관 방문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사업들에 대해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있답니다.

#신규 센터 컨설팅



새로 생긴 신규센터들이 자리를 잡고 아동돌봄 기관으로서 해야할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사자 소진 예방

오늘은 돌봄기관 종사자들이 몸과 마음을 쉬는 날. 다양한 배움으로 잠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도 힐링했답니다.

#TF회의

머리와 가슴을 모을 때 아동돌봄을 위해 더 좋은 생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 정기적으로 돌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가 중요하답니다.

우수사례 수기

광명의 아이들 지구를 품다!!

공향숙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 센터장

그때도 그랬지...

"나 때는 말이야~" 너무 옛날 일 같지만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자연(환경)보호,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듣고 배우며 자라 온 것 같다. 그럼에도 그때는 기후위기가 어떤 것인지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점점 더워지는 기온과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뭔 날씨가 이래'라는 푸념과 함께 나도 모르게 이제 기후위기는 상상이 아니라 심각한 현실임을 느끼고 있다. 2023년 환경교육의무화 시행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때와 같이 기후위기와 자연(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겠지만 문득 '역시 그때의 나처럼 느끼지는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는 지구가 버텨주지 못할 것 같은데 큰일이다. 이 시점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무엇으로 시작해볼까??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의미가 없다. 무엇이든 '시작'을 해야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며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번뜩여 마침 초등돌봄 거점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작성하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광명시 초등돌봄 거점기관으로 네트워크 기관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지금이 시작의 기회가 아닐까?' 다행인 것은 광명시에서도 '탄소중립 도시'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광명하다'를 주제로 ▶1.5℃ 기후의병 ▶수소에너지 인프라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환경적 이슈를 인지하게 하고, 환경을 위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그 변화를 체감하고 실천하는 환경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놀면서 배우는 탄소중립!!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과의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간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한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자연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관찰이나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딱딱하고 제한적인 교육이 아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체험을 통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작은 교육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티커를 받는 즐거움에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잔반 없는 급식을 하는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을 살펴보고 이름표를 달아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

숲의 시작은 씨앗부터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 나무가 되고, 자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이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점점 넓게 퍼져 나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배우고, 작은 변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내고, 아이들은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아동돌봄광명센터와 광명시 네트워크 기관들의 작은 시작이 경기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래본다.

청정마을 행복돌봄

강민지 경기도 아동돌봄구리센터 사업 담당자

친환경도시를 향해

구리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탄소중립실현과 '청정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힘쓰는 도시입니다. 올해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목표로 소중한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둥오리도 있고~

방과 후 아이들과 함께 센터로 오는 길은 갈매천을 따라 걸어옵니다. 여는 때와 같이 '갈매천에 오면~ 청둥오리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발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둥오리 세 마리중 한 마리가 꼼짝도 안 하자 아이들이 근처에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발견하고 주웠습니다. 음료수병 때문에 오리가 아픈 것 같다며 이때부터 아이들은 큰 집게를 학교 가방에 가지고 다니자며 제안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플로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서로 인접해 있었기에 흔쾌히 뜻을 모아주셨고, 갈매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연합 플로깅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긍심과 애착심,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환경 어벤져스와 함께

플로깅 이후, 환경교육의 지속성을 깨닫고 지역과 관련된 환경 활동 검색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생태 보전과 각종 환경보호를 위해 '갈매동 마을 꾸미기',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 '기후위기 대응 실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조모임 단체인 갈매마을환경실천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실린 갈매마을환경실천단의 발대식은 현수막조차 환경실천을 위해 재활용 캔버스 천 위에 물감으로 손수 그려서 만든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천단 대표님께 연락하여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팅 첫날, 환경 어벤져스 같은 아우라를 풍기며 등장하신 멋진 실천단 선생님들 중 한 분은 인근 다함께돌봄센터의 학부모님이기도 해서 더욱 반갑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면지에 인쇄된 기획안을 나눠주시며 지금까지 마을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앞으로 아동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셨고 듣는 내내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실천단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아동들이 분리배출에 대해 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는 '분리배출 OX퀴즈'와 종이갑을 재활용하여 지갑, 필통을 만들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된 '올바른 종이갑 분리배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아동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7월 말,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실천단 선생님들의 열정과 숙련된 지도로 우리 아이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종이갑을 활용한 지갑과 필통을 만들며 스스로 만든 작품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겠다고 뿌듯하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1회 수업으로 진행되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환경에 대한 교육은 지속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내년에는 다회기 수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구리시 환경을 위해 먼저 노력하는 '엄마' 선생님들과의 만남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특별하고, 모두의 기억에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올바른 종이갑 분리배출 교육을 신청해 주신 여러 기관 선생님들과 열띤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신 실천단 활동가분들, 무엇보다 열심히 참여해 준 구리시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곰스크 거점센터

김분녀 경기도 아동돌봄수원센터 센터장

나의 곰스크는 무엇일까?

출근길 클래식 FM에서 DJ가 읽어주는 소설의 한 대목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지금 너는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니? 아니면 그 주인공처럼 편안한 소파 때문에 현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니? 인생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 언저리에는 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지요. 제가 일하는 영역에서 곰스크는 어떤 곳일까? 어느 지점에 닿아야 그 언저리에 닿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시작이 바로 거점센터를 맡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돌봄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민해 왔던 문제들을 거점센터라는 사업을 통해 실현해 낼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로 용기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기차여행은 설레임입니다.

15년 동안 제 가슴과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야 시작하는구나! 라는 설레임으로 거점센터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설레임과 기대로 도착할 그곳을 향한 힘찬 출발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의 만류도 있었고, 다함께돌봄 센터장님들의 격려와 우려를 모두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어려움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아주 당당하게 출발하였습니다.

동상이몽, 그 뜻을 깊이 알게되다

출발.. 어, 이 기차가 아닌가.. 내가 기차를 잘못탄건가?..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내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점사업의 방향성과 성과지점에 대한 동상이몽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수원시의 방향성과 센터장님들과 논의된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경로였고, 협력해야 할 유관기관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거점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동상이몽..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나,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해내야 한다면 거점센터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다시 파이팅!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자원안내서와 리플렛 작업이었습니다. 자원안내서 제작에 대해 고민하면서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들의 사업들이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간에도 유기성을 가진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는 아동돌봄기관을 통합하는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먼저 벤치마킹할 지역부터 탐색하기 시작했고, 대전아이 방문 기회까지 만들어 내며 거점사업의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현행화된 자원안내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캐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리플렛 최종 검토일,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한 센터의 전화번호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구요. 그렇게 수원의 '방과후돌봄지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힘의 원천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며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하다면 그 시작을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는 광역지원단, 동료 센터장님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힘의 원천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촘촘한 돌봄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건강한 아동돌봄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곰스크가 아닐까요?

함께하면 힘이 되는 이천시 아동돌봄

김은경 경기도 아동돌봄이천센터 사업 담당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

이천센터는 2023년 아동돌봄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2일부터 이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아이들 특유의 활기 가득한 돌봄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넘어 이천시 전체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우선 여러 돌봄시설이 함께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업 취지와 방향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기관장님께 첫 연락을 드렸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의 어색함을 지나 이천시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돌보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처음, 함께 마주하는 자리... 돌봄 네트워크 회의

4월 28일 이천시 아동친화팀과 교육지원청, 가족센터, 여러 돌봄기관과 함께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다. 여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참석해 주셨고 개별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천시 전체 아동을 위한 거점사업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실무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면 좋겠다. 돌봄센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운행 사업을 희망한다.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교사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후, 개별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함께 돌보고 서로 힘이 되는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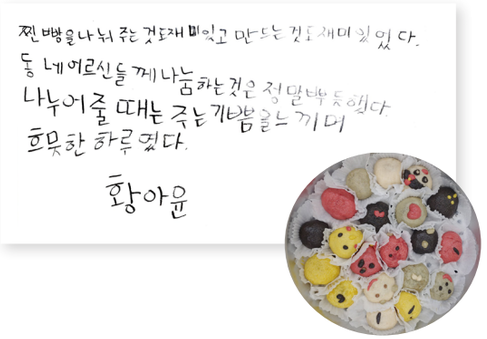
5월 중순 즈음, 이천에 거점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이천로타리 클럽에서 돌봄시설 환경 개선지원을 하고 싶다는 제의가 왔다.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돌봄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설장님께 연락을 드렸다. 동이천로타리 클럽을 통해 한 센터의 오래된 낡은 문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투명한 문으로 교체해 주셨고, 또 다른 센터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서랍장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으로 교체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음식을 조리하는 인덕션, 간판 설치 등 시설에 필요한 기구들을 지원해 주셨다. 이를 통해 아동을 위한 일에 관계를 맺고 서로 힘을 모으는 거점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지역아동센터와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내용을 채워 갈 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많다. 이천시 특산물인 '쌀'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쌀찐빵 만들기를 기획할 때 '요즘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만든 찐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느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다. 아이들이 돌봄센터에서 즐겁게 쌀찐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내가 사는 지역의 특산물을 배우고, 만든 찐빵을 경찰서,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으로 나눔 활동을 했다. 하트모양, 달모양, 동글동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찐빵을 받은 마을 할머니들이 손주 손자 보듯 칭찬해 주셨고, 경찰서에서는 나눔에 대한 감사로 친구들을 삼삼오오 경찰차에 태워 함께 마을 순찰을 시켜 주셨다.

시나브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11월 월요일, 화요일 설봉산에서 '숲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이들이 센터 외부로 나가는 활동을 꺼려할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숲놀이 체험 날,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놀이에 흠뻑 빠져보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먼 곳까지 아이들과 시내버스를 타고 오셨다. 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따뜻해지면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격려에 몽글몽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샘솟는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천시의 여러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돌봄을 받는 아이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거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천시에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고, 아동권리교육, 숲놀이 체험 등 돌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무엇보다 일상 돌봄을 채우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사업 마디마디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시설장님, 센터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여러 주체들과 작은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하여 서로 힘이 되는' 이천시 돌봄 구현을 위해 힘쓰고 싶다.



아동돌봄의 시작은 지역과 함께 단합하는 것!
“어린이, 가족 및 지역사회의 조화”

김수정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 센터장

올해 경기도 아동돌봄파주센터의 사업을 시작하며 중점을 두었던 점은 지역 내 아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함께돌봄센터’기관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기존에 아동돌봄을 실천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와 그 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다. 천천히 한발씩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12개의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님들과 정례 회의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유관기관 대표님들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면서 아동돌봄에 관한 첫 단추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다가갔던 기다림과 설레임이 함께 키우는 아동 돌봄의 끈을 맺는 시작이었다.

첫 번째, 아동들이 전하는 자연의 소리! 다 함께 지구야 사랑해 동요축제!

아동들에게 학습적인 분위기가 아닌 예술과 문화에 접근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그려보았다.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자연도 존중받아야 하며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다 함께! 지구야 사랑해” 동요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강사 파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각 센터는 주제를 선택하고 자연을 주제로 한 ‘별달거리’ 사물놀이, 추억의 주제로 ‘할아버지의 시계’, 사랑의 주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수어송, 꿈을 주제로 톤차임을 활용한 '문어 꿈' 합창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작은 발표회 정도로 생각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참여 수업이 단절되었던 시기였던지라, 아동들이 행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다. 한 아동에게 속한 부모님 외 친인척분들과 이웃사촌까지 참여하는 대행사였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재연된 듯한 돌봄과 관심의 축제였다. 어린이의 영원한 친구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자연의 소리며, 하늘의 소리라고 하셨다. 작고 보드라운 입술로 널리 퍼져 나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였다. 그 울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가슴의 온기로 남아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시민 축제로 가볼까?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학대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그루터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의 해결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캠페인과 선포식을 준비하였다. 대시민 참여로 기획하는 행사인 만큼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시장님과 내빈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선포식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시민 참여 사업으로 준비했기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샌드아트와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문화공연을 감상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나들이 느낌이 나도록 체험 부스를 마련하였다.
체험 부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의 평화, 가족의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동들이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매체로만 소통한다면 가족의 불통이 원인이 되어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착안하여, 아이들과 소통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려 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었다. 체험 부스에는 아이들과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냄비 받침 만들기, 가족 간의 협력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보드게임, 돌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집 화분 꾸미기, ‘넌 최고야! 잘할 수 있어!’와 같은 긍정 캘리그라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체험활동 후 하트 모양의 에코백에 결과물을 넣어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통합되다.

5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완료한 후, 아동 보육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순한 목표를 초월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단결된 것이 느껴졌다. 약 5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든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참가자들이 행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OT를 진행하였다. 아동들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안전의식과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더니 모두가 처음으로 접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해 흥미를 갖고 도와주셨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동돌봄 분야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도 많이 했다. 다양한 복지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살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하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케치만 했을뿐

나는 거점사업에 대해 하얀 도화지에 긁적이는 정도만 했을 뿐이다. 거점센터 오정민 직원의 철저하고 세심한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색깔을 입혀 주셨다. 이와 더불어, 운정행복센터 돌봄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라는 아름다운 색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색깔이 어우러진 완벽한 작품이 탄생하였다. 아동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다양한 색깔을 입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로, 같이, 함께, 하다

이슬기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사업 담당자

여주시 여양로 313번지에 있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는 예전 오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었던 자리로 왼쪽에는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 오른쪽에서는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직접 돌봄을 운영하는 센터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센터 내 사무실과 탕비실, 활동실과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별도의 회의실이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센터 내에 없어 거점사업을 센터 내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회의실과 대강당, 여주시 회의실을 대관하여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초등돌봄 네트워크 회의에서 함께 논의 할 안건과 일정은 회의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 아동돌봄 여주센터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 초등돌봄 기관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조율하여 결정됩니다. 여주시 초등돌봄 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연초 사업 계획 수립 전,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와 12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방문하여 기관별 거점사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종사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에서 구세군 여주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는 4.6km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에서 30km 떨어진 산북지역아동센터는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는 4.6km~30km까지 '서로, 같이, 함께, 하다'라는 생각으로 거점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아동돌봄여주센터는 여주시 초등돌봄기관과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먼 거리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주시 초등돌봄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주시에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초등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 갈 돌봄의 관계망

정희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돌봄사업팀장-지역거점 사업 컨설턴트 참여자

서울시와 협력해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연으로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구성한 컨설팅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첫해에 짧은 경험으로 글을 쓴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조심스럽게 짧은 소회와 기대를 나누어 볼까 한다.

온종일 돌봄정책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2018년경 온종일 돌봄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간의 취약계층 중심 아동돌봄을 뛰어넘어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광역별로, 시 • 군 • 구별로 규모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온종일 돌봄 정책 이후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름의 돌봄 기관이 속속 설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내 돌봄기관들을 연결하고 돌봄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경기도에는 10개의 시 • 군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도 구성되었다.

돌봄의 관계망, 사람들의 관계망

사실 많은 지역에는 이미 오랫동안 지역에서 아동돌봄의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들이 있고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돌봄 공백이 있는 동네에는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등 제도의 경계 밖에서 아이를 돌보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잘 연계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양육자들의 욕구를 수용하며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허브로서 아동돌봄센터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일에 돌봄기관들이 잘 연결되어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지역의 관계망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으로 합류했는데 몇 번의 만남을 지나고 보니 기관의 연결도 결국은 사람의 연결과 같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환대가 필요한 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순간이 있듯 새로운 기관의 등장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면 서로의 존재 이유도 이해하게 되고 각각의 역할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정보와 자원과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경[1]은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고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라고 하였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먼저 곁을 내주고 또 자리를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1)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소개

▶동행

돌봄

커다
on
溫
따뜻할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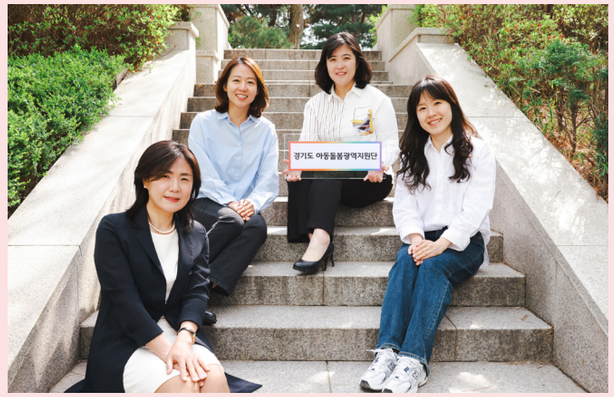
아동돌봄은 Off가 아닌 On[溫]!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 현장실무 2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재단으로 이직해서 경기도 아동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허승연 단장입니다. 입사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재단으로 진입해서 많은 연구 결과물과 현장의 상황을 잘 융합하여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당당한 포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업무 중에 '내가 돌봄을 실행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나를 둘러싼 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묻고, 살피고, 대화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은 분명 '돌봄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시부터 삶을 마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내용만 조금씩 달라질 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서로 간,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듯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돌봄의 대상을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그들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돌봄의 집중도만 다를 뿐 우리는 일상 안에서 가족을, 동료를, 친구를, 지역사회 내 이웃들을 서로 돌보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돌봄이 있다면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기 돌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돌봄이 Off가 된다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기 돌봄은 생존권과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기 생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다양한 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 및 방임, 전염성 질환, 학교폭력, 왕따, 교통안전사고, 아동학대 등등... 자신의 Voice로 세상 밖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없는 약한 존재인 아동을 위한 돌봄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러한 아동돌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기도형 아동돌봄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운영 사업은 도내 "모든 아동"들이 살아가는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돌봄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는 일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업무이니만큼 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아동에 대한 돌봄이 멈춰지지 않도록 항상 On[溫]으로 스위치를 켜두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업무 경험이 없어 좌충우돌하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돌봄'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광역지원단원분들께 이 글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운영체계 변화로 새롭게 시작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10개소에서 새로운 업무 매뉴얼과 지침들,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로 버거운 상황에서도 지역 초등돌봄의 발전과 우리 아동들을 위해 애써주신 센터장과 거점사업 담당자분들, 돌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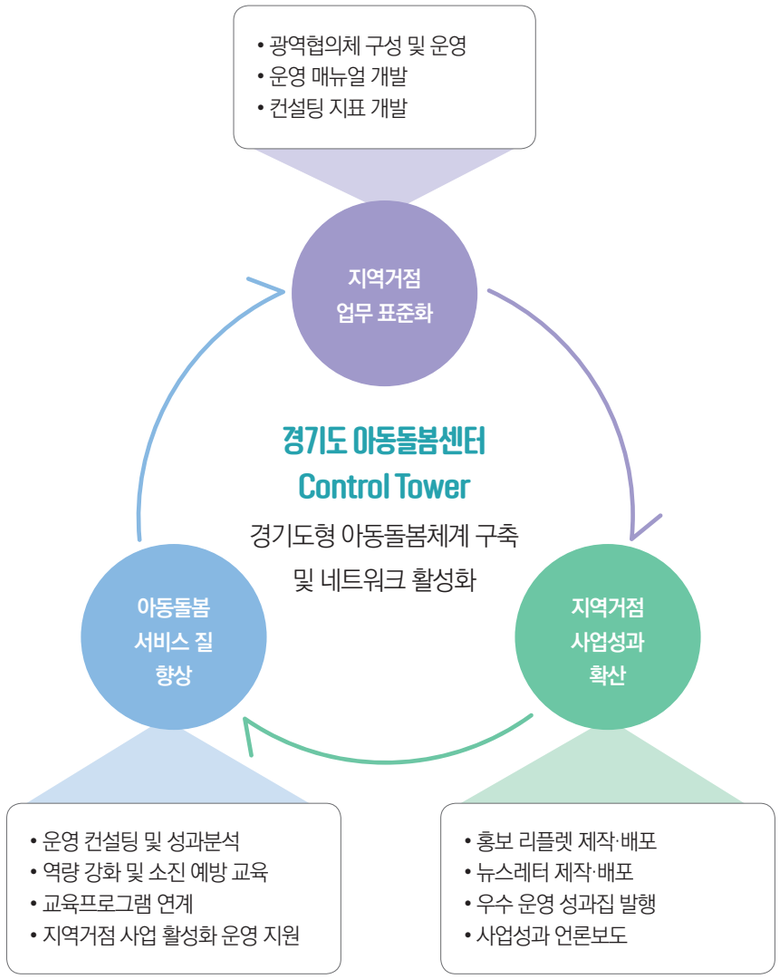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단장 **허승연**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설립 목적 및 역할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함께 키우고, 서로 돌보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Control Tower로서 지역거점 업무표준화, 아동돌봄 서비스 질 향상, 지역거점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아동돌봄지원 전달체계입니다.



주요 사업 운영 현황

아동돌봄지역거점 업무 표준화 사업

2023년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아동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지역거점 사업에 대한 개념, 역할 및 기능, 추진체계, 사업운영 방향성 등에 관한 논의와 세부 지침 안내를 통해 업무 전반 이해도 증진 및 표준화, 효율성 제고

아동돌봄 서비스 질 향상 사업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10개소 지역 내 다양한 아동돌봄시설 간 아동돌봄 현안 공유, 지역특성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한 지역 기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아동돌봄 지역거점 사업 성과 확산 사업

「경기도 아동돌봄센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거점 사업 확산에 기여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사업별 추진 실적(2023.11.30. 현재)

• 지역거점 업무표준화 사업

광역협의체 구성·운영

• 공공협의체 회의	**2**회
• 민간협의체 회의	**2**회
총 **4**회, 참여인원: **78**명	

운영매뉴얼 개발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사례집 발행	**1**건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발행	**1**건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컨설팅 지표 개발	**1**건
– 거점 사업 내·외부 전문가 FGI	**2**회
–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2**회

• 아동돌봄 서비스 질 향상

컨설팅 및 성과분석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현장 컨설팅 – 참여인원54명, 만족도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실적 점검 – 10개소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점검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현장 방문 – 지역별 아동돌봄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사업 만족도 조사 – 지역 초등돌봄협력사업 참여자 3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0**회 **4.5**점 **7**회 **13**회 **1**건
종사자 역량 강화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워크숍 – 사업 수행 주체 통합 워크숍 1회 – 10개소 아동돌봄센터 소통 워크숍 1회 • 역량강화 교육 – 회계실무, 인사노무, 공문서 작성실무 등 교육 – 참여인원113명, 만족도 4.65점	**2**회 **5**회
공통사업 운영지원	• 자원안내서 제작안내 • 교육·프로그램 연계 지원 • 지역돌봄네트워크 정례회의 운영지원	**1**건 **14**회 **8**회

• 지역거점 사업성과 확산 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리플렛제작 •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 홍보물품제작	**1**건 **3**건 **1**건
사업성과 언론보도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본격 운영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통합 워크숍 개최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장 인터뷰 – 도내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 받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사업 운영 업무 지침서 발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내 10개 아동돌봄센터 운영 컨설팅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 소통 워크숍 개최	**7**회
운영 성과집 발행	•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발행	**1**건

총괄 실적 74회 | 11건, 계획대비 달성률 99%, 537명 참여

경기도 아동돌봄사업의 사계절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2차 광역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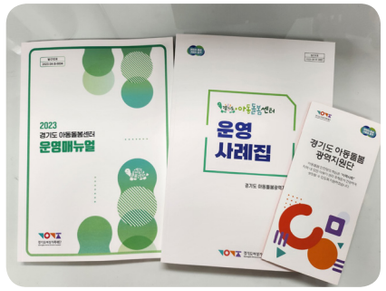
3차 광역협의체

4차 광역협의체

경기도 아동돌봄사업의 사계절

네트워크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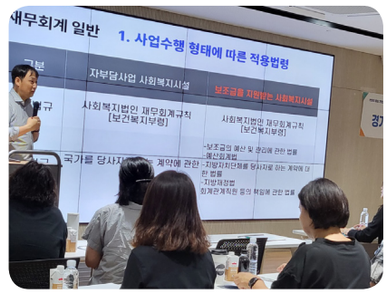
리플렛/운영매뉴얼



뉴스레터 발행

워크숍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현장방문

현장컨설팅

2023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성과집

발행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발행월 2023년 12월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2층

연락처 031.220.3925

홈페이지 www.gwff.kr

※ 본 운영매뉴얼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